

MVT Implication Note (mid-term)

학과 : 컴퓨터과학과

학번 : 2023148037

이름 : 이승준

Hypothesis

1. 문제 정의 : 편향적인 뉴스와 댓글로 인해 사람들의 주체적인 판단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2. 해결책 설명 (아이디어) : AI를 통한 사실만을 추출을 시작으로, 독자들이 정보들을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웹 구현은 메인 페이지에서 어떻게 이용자들이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서술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궁금한 이슈를 찾고 해당 이슈에 대한 객관적인 fact와 그것을 각 진영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정보와 함께 해당 관점에 대한 본인의 의견도 쓸 수 있는 사이트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사이트의 구성 요소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요새 뜨거운 주제인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관해 짤막하게 가짜 뉴스 페이지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3. XyZ 가설 :

뉴스를 소비하는 한국인의 50%는 편향적이지 않은 진실된 정보를 원할 것입니다.

Hooking

1. 배포처 : 가능한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에게 대해 본 사이트를 홍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좌파를 대변할 수 있는 “디시인사이드 더불어민주당 갤러리”와 “루리웹 정치유머 게시판”과 우파를 대변할 수 있는 “국민의 힘 비대위 갤러리”와 “국민의 힘 갤러리”에 관련 자료를 배포했다. 또한 어느 정도 중립의 포지션이라고 생각했던 곳인 “에브리타임 연세대”와 “에브리타임 KAIST”에 배포해주었습니다.

2. 배포 카피 : 제목은 “편향되지 않은 뉴스, <언바이어스드>의 의견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로, 배포처에 상관없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서비스의 지향성을 확실히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3. 배포 게시물 내용 : 비교적 글리젠이 적은 에브리타임의 경우, 시사/이슈 게시판에 각각 한 번만 배포하여 게시판 이용자들이 해당 건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비교적 글리젠이 많은 디시인사이드의 경우에는 1차와 2차로 나누어 오전 11시와 오후 10시에 각각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좌파 커뮤니티와 우파 커뮤니티 특성에 맞추어 본문 내용을 살짝씩 다르게 해주었는데, 이는 게시판 이용자에게 호감을 사는 것이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받아보기 수월할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사진으로 넣어두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일반] 편향되지 않은 뉴스, <언바이어스트>의 의견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민갤러(S8.228) | 2024.11.07 21:50:39

민갤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도 한번 글을 올렸는데요 ㅎㅎ

민갤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몇몇 한국 언론들은 신뢰하기 힘든 수준으로 편향적인 뉴스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전에 대국민담화를 하셨는데요.

실제로 그 영상을 보지 않고 뉴스와 그 댓글들만 보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모두 뉴스가 지켜야 할 어느 정도의 중립성이 훼손되었기에 나온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현재 AI를 이용하여 <언바이어스트>라는 이름의 편향되지 않은 진실만 다루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또한, 그 외에도 각 진영의 의견까지 제공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사이트 방문하셔서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https://unbiasednews.netlify.app/>

더불어민주당 갤러리[®]

[일반] 편향되지 않은 뉴스, <언바이어스트>의 의견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민갤러(S8.228) | 2024.11.07 22:01:56

민갤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도 한번 글을 올렸는데요 ㅎㅎ

민갤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몇몇 한국 언론들은 신뢰하기 힘든 수준으로 편향적인 뉴스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정작 다루어야 할 정보를 다루지 않거나,

실제로 객관적인 상황을 보지 않고, 뉴스와 그 댓글들만 보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모두 뉴스가 지켜야 할 어느 정도의 중립성이 훼손되었기에 나온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현재 AI를 이용하여 <언바이어스트>라는 이름의 편향되지 않은 진실만 다루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또한, 추가로 각 진영의 의견까지 제공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사이트 방문하셔서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https://unbiasednews.netlify.app/>

4. 배포처 조회수 (측정 가능한 경우) :

더불어민주당 갤러리 / 1차 : 100회, 2차 : 82회

국민의 힘 비대위 갤러리 / 1차 : 88회, 2차 : 82회

Landing

1. 랜딩(MVT) 페이지 주소 : <https://unbiasednews.netlify.app/>

2. 랜딩 페이지 방문자 수 :

210회로, id를 통해서 알아낸 순수 방문자 수는 115명으로 판단됩니다.

(11/8 오전 2시 40분 기준)

3. 방문자수 데이터 분석 : 그래도 신경 써서 이곳저곳에 게시한 덕분인지, 꽤나 많은 사람들이 제 사이트를 찾아주었습니다. 또한, 그 중에서도 실제로 몇 분께서는 제 사이트에 꽤 장시간 있기까지 하였습니다. referrer를 통해 알아낸 것인데, 단순히 시각화만 해둔 사이트의 검색란에 본인이 궁금했던 키워드(윤석열, 이재명, 광우병 등)를 검색해 본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실제로 구현해놓지 않았고, 그래서 조금 더 확장된 가짜 웹사이트를 만들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뿌렸던 게시물 수에 비해서는 디시인사이드보다 에브리타임 쪽에서 더 많은 사이트 접속이 있었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데스크탑에 비해 모바일 유저가 훨씬 더 많다는 것도 눈에 띄는 점이었습니다.

Acquisition

1. 사용자 인센티브 : 별도의 인센티브는 마련해두지 않고, 단순히 서비스가 런칭되었을 때 알림을 드리겠다는 말만 적어놓았습니다.

2. 획득 사용자 수 : 4회를 획득했으나, 실제로 2회는 한 분께서 써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수 사용자 수로는 3명을 획득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3. 획득 사용자 데이터 분석 : 세 분 중 한 분은 referrer가 적히지 않아 아쉽게도 어디서 오셨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한 분께서는 더불어민주당 갤러리, 다른 한 분께서는 에브리타임에서 오셔서 의견을 적어주셨는데요. 대부분 서비스에 대한 비판 의견들이었습니다. 독특하게도 민주당 갤러리에서 오신 분께서는 서로 다른 두 이메일로 두 번 의견을 적어주셨습니다.

“일단은 AI로 요약된 뉴스 내용에 대한 출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댓글 기능을 넣으면 정치적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난장판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다고 빼면 상당히 재미없어지겠지요. 예컨대 실명제를 한다든지 해서(카카오 프로필을 연동시키면 대부분은 실명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명제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사려 깊은 댓글을 달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토론 기능을 만드신다면 욕설, 비속어 규제는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커뮤니티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욕설이 들어가는 순간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aspect에서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트럼프의 외교정책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지? 트럼프는 고립주의자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한국에 무엇이 좋을지? 길게 보면 한러관계 회복의 물꼬를 틀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특히 한국 입장에서, 이슈에 대한 자세한 분석,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예측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위와 같은데요, 댓글 기능에 대한 우려와 토론 기능에서의 규제, 심층적인 분석에 관해 말씀 해주셨습니다! 앞선 두 부분은 댓글 기능의 적절한 규제로 운영자와 이용자 간에 타협점을 찾아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심층적인 분석 부분은 제가 페이크 웹을 만들 때 아무래도 부족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나온 말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2번의 의견이나 내주신 점에서 제 서비스에 무척 관심이 있다고 느껴져 무척 감사했습니다. 모두 충분히 수용해야 할 포인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브리타임에서 오신 다른 한 분께서 적어주신 것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ai가 학습한 데이터셋에 따라 편향된 답을 주기 쉽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ai를 통해 편향되지 않은 진실만을 전달할수 있다고 확인하시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것 역시 제 프로젝트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저는 AI를 통해 편향되지 않은 진실만을 전달할 수 있다는 기술적인 확신이 있었던 게 아니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본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프로젝트를 더욱 나아가게 된다면, 기술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용자들에게 더욱 더 신뢰도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다른 한 분께서 남겨주신 의견도 첫 번째 분 말씀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Discussion 탭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Implication

1. MVT 결과 분석 : 랜딩 페이지 방문자 수는 제 생각보다도 훨씬 많았고, 이는 분명 성공적인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제 자체가 정치 게시판에 이용하는 유저라면 무척 매력적인 요소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게시판에 남긴 글에서도 4개의 게시글 모두 합쳐 추천을 20개나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추가로 본 메일란을 통해서가 아닌 커뮤니티에 남긴 글 댓글을 통해서도 몇몇 의견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의견들 모두 긍정적인 반응이었다는 점에서 제 주제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용자 획득으로까지 다수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 페이크 웹 구현의 아쉬움이 무척 컸습니다.

2. 시사점 : 제 서비스 자체에 대한 아이디어는 많은 분들께서 공감해주신 것으로 판단했기에, 앞으로 더욱 지속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이디어 이외에 제대로 구현된 것은 없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앞으로 멋진 페이크 웹 구현과 함께, 다른 것보다도 이용자분께서도 언급해주신 “편향되지 않는 사실을 전달하는 AI”가 어떻게 구현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